

가



미래를 향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 기관 그리고 교회

네팔(정정영, GMD) 요르단(양일주, 김현숙) 중국(이정삼, 유인영, 유혜경, 김성남, 김선화) 카자흐스탄(최진규) 터키(강그레이스) 파키스탄(Zaman Anjum) 푸에르토리코(김혜진, 한희숙) 기독교보 월간고신 기독교북한선교회 섬의료복지재단(북한선교재단) 중동선교회 한민족복지재단(북한행공장)

구역이 지원하는 선교지, 기관 그리고 교회

중국(김정국 - 청1 / 이산지 - 청2, 청5) 터키(진요한 - 청4, 청6, 노원1, 노원3) 필리핀(정순성/손은경 - 청국, 중랑1, 성북1) 광동교회(한익서 - 노원2, 장우) 군산 성복중앙교회(최상권 - 북부, 성북2) 사랑의 교회(김희준 - 청9) 회정교회(오수목 - 소망, 남부) 양평식장교회(도봉1) 황성장로교회(조원래 - 중랑1, 중랑2) 교회개혁 실천연대(도봉2, 청7) 수도권미례교회포럼(영산)



손해보는 믿음 (룻4:3-12)

김대진 목사

여러분 손해보험 들어 놓으셨습니까? 요즘에는 혼수에도 손해보험을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좇아 떠나는 사람과 손해 볼 줄 알면서도 손해를 떠나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들레헬을 떠났던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에게는 조상대로 내려오던 기업(땅)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들을 잃어 기업을 이을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그 기업을 살 수 있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15절) 이 말은 보아스가 룻에게서 아들(오벳)을 낳고 한 말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미치는 것보다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더 귀중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초등학교에서도 생명존중사상을 배웁니다.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도덕과목의 목표에서 생명존중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말하는 생명존중사상은 이러한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2:20)" "그 죽은 자의 기업

보아스는 약속을 지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룻이 용기를 내서 프리포즈했을 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3:11)" 보아스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라도 손해를 감수하였던 것입니다. 김장훈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출한 청소년들을 데리고 문화교회를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김장훈이 어머니의 어려움을 보고 음악에 성공해서 돈 벌면 어머니의 사역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전속계약을 맺게 되었을 때 계약금 9

L · o · v · e · l · y · · · C · h · u · r · c · h · · · w · i · t · h · · · J · e · s · u · s

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때에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1순위 친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업 무를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무를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6절)" 정확한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까 두려워하여 나오미의 기업을 잇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땅을 사게 되면 과부인 룻을 아내로 취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되며, 룻이 아들을 낳게 되면 자신이 샀던 땅까지도 그 아들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재산상 미칠 손해를 예상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손해보기를 거절한 사람은 "아무개"로 나타납니다(4:1). 반면에 손해를 보기를 자청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 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아스는 손해보는 일을 감수할 수 있었을까요? 보아스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돈보다 생명이 회복이 더 가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였다(4:10)"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보아스가 말하는 생명이 회복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이 회복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요일 2:25)"

보아스는 돈보다 사랑이 더 가치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무개"와 "보아스"의 차이점은 룻을 향한 사랑의 여부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재산상의 손해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면 손해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사랑보다 돈을 우상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없이 돈을 보고 결혼한 가정이 깨어지지 않는 것이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반면에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하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투자한다고 그것을 회수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9구역 광릉수목원 늦가을 나들이

억을 그대로 기부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김장훈씨가 기부한 금액이 40억이 될 정도로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장훈씨의 믿음은 어머니와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처럼 생각하고 지켜낸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손해보는 믿음의 결말은 손해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보아스가 당장에는 손해가 보았지만 모든 성읍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아무개"처럼 손해를 두려워 마십시오. 보아스처럼 생명이 회복과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최후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설교 하이라이트) 예수사랑

사 · 랑 · 과 · 은 · 헤 · 가 · 넘 · 치 · 는 · 예 · 배

주일 1·2부 예배 1부: 9시 30분/2부: 11시 30분

인도: 김대진 목사

*입례송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배로의 부름

기도인도 1부 최병두 집사
2부 오정관 장로

찬 송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성서교독 제39문 이사야 55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봉헌찬송 392장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봉헌예물

봉헌기도

*말씀봉독 요한복음 13:36-14:4 (신 171면)

찬 양 1부 호산나찬양대
2부 할렐루야찬양대

광고&성도의 교제

말씀선포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헌신의 기도

*폐회송영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축 도

*표는 헌신의 뜻으로 일어섭니다.

교독문 제39문 이사야 55장

인도: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회중: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인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회중: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인도: 나를 청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회중: 너희 마음이 기쁨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인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회중: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인도: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회중: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인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회중: 가까이 게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인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중: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주일3부 마리아현신예배 오후 2시 30분

사 회 이상숙 집사
찬 송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기 도 류옥진 집사
찬 송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성경봉독 박현주 권찰
성 경 잠 21:1-31 (구 932면)
특 송 마리아현신예배 일동
설 교 김대진 목사

잠언강해 37

"이길은 여호와께 있는니라"

헌금기도 전선악 집사

봉헌/찬송 395장 너 시험을 당해

축 도 김대진 목사

수요예배 저녁 7시 30분

"예수님의 시험받으심"

성 경 눅 4:1-13 (신 93면)

설 교 김준석 강도사

기 도 이정옥 집사

찬 송 94장, 405장, 395장

목요열린예배 오후 1시 30분

인 도 김대진 목사

금요기도회 저녁 9시

설 교 이우리 전도사

기도인도 김대진 목사

찬양인도 김준석 강도사

새벽기도회 매일새벽5시

인 도 김대진 목사

동 산 소 식 - 2007년 교회표어: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라! (고후 5:9)

1. 사랑이 넘치는 서울동산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2. 헌신예배 - 오늘 3부 예배는 마리아현신예배로 드립니다.
3. 추수감사주일 -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4. 하반기 학습·세례식 - 학습·세례문답: 11월 18일, 10시 30분, 당회실
- 학습·세례식: 11월 18일, 2부 예배시
5. 동서울여전도회 월례회 - 11월 12일(월) 오전 11시 샘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6. 목요전도안내 - 매주 목요일마다 국민은행과 하나로마트 입구에서 1시간 동안 전도합니다. 따뜻한 차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실 분은 오후 2시까지 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회원 가입하신 후 승인을 받아야 글쓰기, 읽기 기능이 가능합니다.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세요.
8. 동서울주일학교 교사대회 - 기간: 11.23(금) 오후 7시-10시/11.24(토) 오후 2시-5시30분
- 장소: 동부제일교회당 (자세한 사항은 동산마당 참조)
9. 다음주 헌신예배 - 롯데전도회에서 준비하여 드립니다.
10. 기도해 주세요. - 11.15(목)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 서울동산교회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붙들어 주소서.

다음주 예배기도당번 (11.18)

- 1부: 김중국 집사
- 2부: 백동선 장로
- 3부: 롯데헌신예배
- 수요: 이향순 집사

예배모임안내

• 주일 1부	09:30	7층	• 영아부	11:30	6층
• 주일 2부	11:30	7층	• 유치부	09:30	6층
• 주일 3부	14:30	7층	• 유초등부	09:00	6층
• 목요예배	13:30	7층	• 중고등부	11:00	6층
• 노방전도(목)	14:30	6층	• 청년부	13:30	6층

11월 봉사위원

- 안내위원 1부 정효기 집사 양인심 집사
- 2부 최병두 집사 육수남 권사
- 헌금위원 1부 정효기 집사 양인심 집사
- 2부 최병두 집사 육수남 권사

[11월 목회계획]

18일 추수감사주일 롯데헌신예배 학습세례식 성찬식
25일 요한헌신예배 정기총회 성탄준비위원회임

[12월 목회계획]

2일 123특새 연합찬양예배
9일 찬양예배

사랑의 동산

형제가 서로 다룰 때

“저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대해 주고 또 아이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계속 싸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오늘 아침 소개해 드리는 한 청취자의 사연인데요.

한마디로 이 가정처럼 계속 싸우는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의 징계능력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겠지요.

아이들이 집안에서 잘못 했을 때 그에 합당한 징계규율이

서있지 않으면 그 가정에는 바람 잘 날이 없을 겁니다.

국가의 법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처럼 가정에도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서로 싸우다가 부모에게 중재를 요청 했을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적절한 징계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피하려 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분명히 동생이 잘못했는데도 형에게만

“야야, 네 동생이 어리니까 네가 참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형의 양보만을 요구합니다. 형이 너그러워야한다는 말은

그렇듯해 보이지만 동생의 잘못은 징계하지 않은 채 형보고만

참으라고 할 때 그 동생은 점점 더 잘못 되어가고

형은 호소 할 길 없는 우울증 속에 빠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가 나서서

공정한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훈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징계가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놀라운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징계는 아버지 자신의 지식과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 놓고 자녀들이 읽게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를 사랑의 회초리로 다루는 것임을

꼭 기억하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 copyright@ 가정을 낳는 가정 “강안삼의 가정편지” -

사랑이 넘치는 서울동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산교회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옥고를 치루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고신교단에 속해있는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서울동산교회의 비전을 소개합니다.

▶ 어느 누구나 오를 수 있는 복음의 동산

유대인도 헬라인도 가난한 자도 부유한자도 죄인도 병자도 차별 없이 어느 누구나 다 오를 수 있는 나지 막한 동산이 되기를 바라며 복음의 능력이 운행하는 교회를 꿈꿨다.

▶ 균형 잡힌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좌우 한 쪽으로 치우친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을 균형 있게 가르치고 훈련하여 독수리 날개 치며 오름 같이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를 꿈꿨다.

▶ 미래를 향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으로 상처 입은 사회와 개인을 치유하며 노인과 청년이라는 두 그룹의 사역에 집중 함으로 중형교회로서 특화된 사역을 감당하는 치유 공동체, 사역공동체를 꿈꿨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대진

시무장로: 최병호 정재만 오정관 백동선

피택장로: 김성용 문용현

은퇴장로: 강장환

부교역자: 박 신 강도사(교육/행정/학사관/1교구)

김준석 강도사(음악전담/인터넷/2교구)

김성애 전도사(심방/재신자부/기초양육)

이우리 전도사(중고등부/청년부)

■ 서울동산교회 안내

주소: 우)132-899, 서울시 도봉구 창4동 14-4

전화: 02)900-2232

홈페이지: www.dongsan21.org

(찾아 오시는 길)



그러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고후 5:9)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라!

Our Goal to please God!

어느 누구나 오를 수 있는 복음의 동산

균형잡힌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